

도움이 필요한 곳 어디든...남구 이동복지관이 찾아갑니다

‘지역밀착형 히어로 복지관’ 출범
동신대·양지·인에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없는 지역 찾아 서비스 제공

광주시 남구가 거주지 주변에 복지관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 이동식 복지관 서비스를 시행한다.
광주시 남구는 30일 복지관 미설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역밀착형 히어로(HERO) 복지관’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이동복지 서비스 운영에 들어갔다.

히어로 복지관은 남구 관내 3곳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복지관이 없는 동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형 복지관이다.

기존에는 복지관이 설치된 일부 동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됐는데, 복지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는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

현재 남구에는 월산4동 동신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양림동 양지 종합사회복지관, 봉선2동 인에 종합사회복지관 등 3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복지관은 남구 17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해 ‘찾아가는 방식’으로 히어로 복지관을 운영할 방침이다.

권역별로 동신대 종합사회복지관은 월산동, 월산4·5동, 주월2동, 송암동 등을 맡으며 양지 종합사회복지관은 양림동, 사직동, 백운1·2동, 주월1동, 진월동, 효덕동을 담당한다. 인에 종합사회복지관은 방림1·2동, 봉선1·2동, 대촌동 등지에서 활동한다.

총 사업비 3600만원을 투입해 복지관별로 지역 맞춤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 동과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며 복지대상자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복지(돌봄)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등에 연계하는 것 등이 이들의 역할이다.

세부적으로는 어르신 대상 영양식 지원, 은둔형 청년과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자립 프로그램, ‘달빛 어린 마을’ 등 아동·청소년 대상 지역사업, 1~3세대 교류 프로그램 등을 펼친다.

복지관 간 공동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희망복지 다잇소’와 ‘히어로 이동복지상담소’를 공동 운영해, 물리적 거리를 넘어선 복지 접근성과 정보 연결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민 누구나 쉽게 복지 정보에 접근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남구는 이번 히어로 복지관 사업이 단순히 서비스 확장 차원이 아니라, 복지 전달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관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느껴온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행정과 민간 기관이 협력해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구는 사업 추진 이후 각 복지관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그동안 복지관이 위치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주민들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히어로 복지관은 지역 기반의 복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향후 전달체계 전반의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산구, 선제적 대응으로 ‘싱크홀’ 대폭 감소

지난 2년간 127개 지반 빈 공간 확인...95건 정비·32건 보수

광주시 광산구가 지난 2년 동안 하수관로 전수 조사를 거쳐 싱크홀(땅꺼짐) 현상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30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에 걸쳐 총 5억 6000만원을 투입, 지표투과레이더로 하수관로 전수 조사를 한 결과 127개 지반 공동현상(빈 공간)을 확인했다.

광산구는 95건을 즉시 정비하고 32건은 별도 공사를 통해 보수했다.

그 결과 광산구에서는 2018~2020년 46건의 땅꺼짐이 발생한 데 비해 2023년에는 8건, 2024년에는 단 1건의 땅꺼짐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관로 총연장,도로면적,행정구역 면적 등을 감안할 때 지반 침하 발생건수가 타 자치구 등과 비교했을 경우 현저히 낮아졌다는 것이 광산구 설명이다.

광산구는 이와 별도로 그동안 2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CCTV조사, 연막시험 등 하수도 오정조사 용역을 진행해 지반 내 공동현상 발생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산구는 또 땅꺼짐 발생 시 즉시 현장 확인 및 응급 복구 체계를 가동하고, 과거 땅꺼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땅꺼짐 사고 사전대비를 위해 5년마다 지표투과레이더 공동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 지반 침하 평가 위험도까지 병행해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김팔용 광산구 안전교통국장은 “하수도 침하는 단순 사고가 아닌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조치하는 선제 행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승철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시 동구가 ‘광주다움 통합돌봄 민관협력 권역별 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 제공)

“더 촘촘한 돌봄”...동구, 통합돌봄체계 강화

권역별 사례 회의 실무역량 집중

광주시 동구가 통합적인 돌봄 체계 구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30일 동구에 따르면 민관 협력을 통해 촘촘한 돌봄망을 조성하기 위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권역별 사례 회의가 최근 3차례에 걸쳐 열렸다.

사례 회의는 구정 통합돌봄과를 중심으로 관내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동구치매안심센터, 복지시설 돌봄 업무 담당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관계자들은 고난도 사례를 공유하고 복지 자원에 대한 정보 교환을 통해 실무 역량을 높였다.

지난해부터 매월 실시 중인 이 회의는 올해 들어 동구 인문학당(4월 24일), 책정원(4월 25일), 동구장애인복지관(4월 28일) 등에서 열려 참석자들

이 회의와 함께 지역 주요 시설을 탐방할 기회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사례 회의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가진 고난도 사례관리 세대에 대해 민관이 함께 개입 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동구의 시설을 돌아볼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례 회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이 함께 만드는 돌봄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인문도시 동구의 특색을 살려 지역 공간을 회의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돌봄과 인문이 어우러지는 동구만의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전남대 상대 골목 상점가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북구,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 확보

광주시 북구가 전남대 상대 골목형 상점가 일대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한다.

북구는 지난 2월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사업 공모에 참여,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보차혼용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법제화된 제도이다. 이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보다 우선하도록 보장하고 일반도로와 차별화를 위한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안내표지판 및 과속 방지턱 설치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인식과 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북구는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 1억 5000만원에 구비 5000만 원을 더해 총 2억원의 예산을 활용, 전남대 상대 골목형 상점가 일원(설죽로 202번길)에 470여m의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상점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하루 1만 7000여명의 유동 인구가 있을 만큼 보행량이 많지만 도로의 폭이 좁아 보도 설치가 불가능해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다.

이번 사업은 올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및 고시, 주민설명회, 사업 실시계획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조성 이후에도 연차별 점검과 관리 등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북구 어디서나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서구, ‘마음톡톡’ 서비스 직장인들 정신건강 관리

광주시 서구가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로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을 위해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구는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마음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마음톡톡(talk talk)’을 제공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마음톡톡은 서구가 관내 소재 30인 이상 사업장 4곳을 대상으로 직장이나 기관에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를 돕는 현장형 프로그램이다. 신청을 원하는 직장·기관은 오는 5월 16일까지 서구청 누리집을 참고해 전자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내용에는 ▲스트레스·우울감사 및 뇌파·맥파 측정 등 정신건강검사 ▲고위험군 대상 ‘마음건강주치의’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정신건강 강화 ▲원예·아로마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또한 ▲당뇨·혈압 측정 ▲니코틴 의존도 검사 및 금연상담 등 신체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제공 예정이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기관 4곳을 선정, 직장인 560명에게 정신 및 신체 건강검진, 아로마 테라피, 행복 푸드트럭 등을 지원했다.

이원구 서구보건소장은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직장인이 일터에서 마음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많은 기관들이 동참해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